

광주·전남 오늘 ‘힌남노’ 영향권... “역대급 강풍 대비를”

오늘 ‘태풍특보’ 광주·전남 내륙·전 해상 발효
 태풍 강도 ‘매우 강’...사흘 간 최대 400mm 비
 뱃길 통제... “수확철 농산물·해안 피해 유의”

광주·전남이 5일부터 점차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풍·폭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후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 남·서해 전 해상에 태풍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힌남노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타이완 타이베

이 동쪽 약 3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1km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중심 기압은 940hPa, 최대 풍속은 초속 47m이며, 강풍 반경은 430km다.
 힌남노의 강도는 ‘매우 강’으로,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세기다. 올해 발생한 11개의 태풍 중 가장 강력하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이날 오후 일본 오키나

와 서쪽 바다를 지나 5일 오전 제주 서귀포 바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5·6일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다.
 태풍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는 이날부터 사흘 간 지역에 100~300mm의 비가 내리겠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같은 기간 최대 풍속은 전남 남해안은 시속 220km, 서해안 시속 140km, 내륙 시속 110km에 이르는 역대급 강풍이 예상된다.
 남·서해상에선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물결이 최대 10m까지 높게 일겠다.
 기상청은 태풍에 만조 시간까지 겹쳐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해안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태풍 북상에 따라 바닷길도 막혔다. 목포와 안도는 각기 1개 노선을 제외한 모든 항로가 여객선 운항을 멈췄다. 여수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항공기 노선은 현재 정상 운항 중이다.
 안도·목포·여수해경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보’로 격상하고, 방파제·갯바위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모든 22개 시·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광주시도 기상예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대응을 유지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태풍 피

해 최소화를 위해 ‘작물 별 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수확기에 있는 조생종 배는 태풍 전 미리 수확하고 논·밭두렁, 제방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경상도 인근을 따라 지날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전남도 강풍 반경에 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큰 비가 예상돼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루 최대 풍속이 가장 강했던 태풍은 2003년 9월 ‘매미’로 51.1%에 이르렀다. 이어 2016년 10월 ‘차바’ 49%, 2000년 8월 ‘쁘라삐룬’ 47.4% 순이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전남서 무인점포 절도 사흘에 1번 꼴... “예방책 시급”



광주·전남 지역 무인 점포에서 사흘에 1번 꼴로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하는 무인 점포에서 절도 범행이 잇따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무인 점포 내 절도 사건은 광주 114건, 전남 38건이다.
 광주·전남을 통틀어 사흘에 1번 꼴로 무인 점포를 노린 절도가 발생한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1543건(24%)으로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이 가장 잦았다. 이어 경기 남부 1354건, 부산 480건, 대전 437건, 경기 북부 431건 순이었다.
 무인 점포는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

고 비대면 운영이 가능해 다양한 업종에서 급격히 늘고 있다.
 동시에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절도 또는 시설 파손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무인점포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가능한 자유업으로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도 지난해 3월부터서야 전국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무인 점포 내 절도 사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무인 점포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소액 절도사건이 늘면서 경찰의 수사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의원은 업주들이 폐쇄회로(CC)TV 방범이나 별도 보안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무인 점포는 앞으로도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인 점포 절도의 43%가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무인 점포 대상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업주에게 보강하도록 하는 등 수사당국이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기자

나주배 농가 역대급 태풍에 전전긍긍... “그저 기도만 할 뿐”

낙과 피해 예방 안간힘...철골 지지대·방풍망 보강 작업 분주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4일 오전 전남 나주시 금천면 한 과수원에서 이일수(65)씨가 조생종 배를 따고 있다.

“어찌됐고, 매년 무사히 지나가라고 기도만 하제.”
 4일 오전 전남 나주시 금천면 일대 배농가는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파란 방풍망이 둘러친 과수원 안에는 방풍·방풍용 회색 봉투가 씌워진 수많은 배 열매가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농민들은 유독 심하게 흔들리는 배나무를 찾아다니며 나

뭇가지에 철골 지지대를 엮었다. 방풍망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히 뚫린 구멍을 점검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따금 봉투가 벗겨진 채 나뭇가지에 매달려있던 조생종 배들은 이미 노란 색으로 익은 상태였다. 2~3일만 더 지나면 상품성을 갖춰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지만 태풍 탓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다.
 벌써부터 바람을 맞아 바닥에 떨어진 배들

도 있었다.
 태풍 북상 영향으로 바람이 조금씩 거세져 자 농민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날 배나무 지지대 보강 작업에 나선 이일수(65)씨도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주까지 조생종 배를 수확하던 이씨는 갑작스런 태풍 북상 소식으로 모든 작업을 중단한 채 지지대 보강 작업에 열중이다.
 이씨 소유 전체 과수원 4000여 평(1.3ha) 중 조생종 배 수확 면적은 1500여 평(0.5ha). 태풍 탓에 수확을 할 수 없게 되자 현재 조생종 배 수확률이 절반 가량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제대로 된 수확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2500여 평(0.8ha)에 심어진 만생종 배들의 낙과 피해도 우려된다.
 26년째 배를 수확하고 있는 이씨는 매년 불어 닥치는 태풍에 손쓸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태풍이 와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가지를 동여매고 방풍망을 손질하는 것이 전부다”며 “추석을 앞두고 수확 시기를 잡았는데 태풍이 올라오니 계획이 틀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태풍 오마이스(OMAS)는 다행히 비껴가면서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크기와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걱정이 앞선다”며 “(태풍은) 거스를수가 없기에 그저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나주=송준표 기자

제24회 서편제 보성 소리 축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2022. 9. 30. - 10. 2. 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보성 판소리 성지

접수기간 2022.8.16. 화 ~ 9.23. 목 18:00 까지 도착분

접수방법 본인 및 대리신청, 방문·우편·e-mail·FAX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 지참(대회 당일)
 ※ 판소리 명창부: 원형 또는 2시간 이상 발표 경력 증명 자료 제출

참가비 없음

접수처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우편 및 방문 (59453)전남 보성읍 송재로 281-11 보성문화원
 e-mail bs2629@hanmail.net · FAX (061)853-2629

접수안내 (061)850-5892, 852-2629 /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tour/festival/sopyonje

주최 보성군 주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전라남도교육청, 보성문화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관중 경연대회로 전환될 수 있음.